

OVERWATCH 2

HEROES ASCENDANT

신의의 경쟁



JUSTIN GROOT, GAVIN JURGENS-FYHRIE, MIRANDA MOYER 단편 소설

이야기

*JUSTIN GROOT, GAVIN JURGENS-FYHRIE,
MIRANDA MOYER*

그림

HANNAH TEMPLER

편집

CHLOE FRABONI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AMBER THIBODEAU

디자인

JESSICA RODRIGUEZ

세계관 자문

MADI BUCKINGHAM, IAN LANDA-BEAVERS

게임 팀 자문

*JEFF CHAMBERLAIN, GAVIN JURGENS-FYHRIE,
PETER C. LEE, MIRANDA MOYER, DION ROG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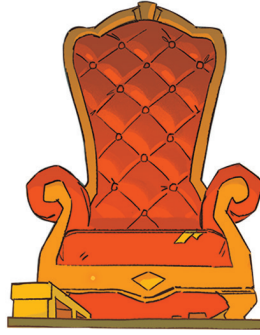
도움 주신 분

IAN LANDA-BEAVERS, MADDY COOK



© 2024 Blizzard Entertainment, Inc.

Blizzard and the Blizzard Entertainment logo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Blizzard Entertainment, Inc. in the U.S. or other countries.



“보기가 좀 안 좋다는 건 알아.” 정크랫은 코를 긁으려고 사슬에 묶인 손을 비틀며 말했다.

로드호그라고 불리는 그의 덩치 큰 파트너 마코 러틀리지는 훨씬 무거운 사슬에 묶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살이 박힌 높은 창을 통해 과격하는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다. 투기장에서 누군가가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를 잃은 듯 비명을 질렀다.

절친이 초조해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정크랫에게 그런 소리 따윈 들리지 않았다. “긴장 풀라고! 말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정크랫이 말했다. “후끈 달아올랐다 싶으면 여왕 나리께 숨겨진 보물이 어디 있는지 얘기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¹

로드호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래.” 정크랫이 말했다. “나랑 여왕이 어떤 사이인지 알잖아! 바늘과 실 같다니까! 너랑 나랑은 다르게.” 그는 황급히 덧붙였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는 더러운 발가락으로 군데군데 이가 나간 바닥을 긁으며 할 말을 고민했다.

“선의를 경쟁 관계라고 할까!” 그가 말했다. “뭐, 그리 우호적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존중하잖아.”

로드호그가 툭툭거렸다. 정크랫은 그걸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 뭐, 크게 혼날 수도 있겠지.” 정크랫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서 뭐? 그냥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몇 마디 하고, 진창 구덩이에 삽질 좀 하고, 그다음엔? 예전처럼 술집 가서 보바 차랑 바삭한 귀뚜라미 먹는 거야!”

로드호그는 전혀 마음이 놓인 것 같지 않았다. 정크랫은 친구의 표정을 보고 오히려 걱정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좋아.” 정크랫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감방에 며칠 있어야 할 수도 있어. 길어봤자 1주일 정도. 그게 걱정이야?”

침묵이 이어졌다.

1 쓰레기촌 아래에 숨겨진 보물의 위치를 정크랫이 알고 있다는 사실은 호주 대륙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퍼진 비밀이었다. 방사능에 오염된 오토 150킬로미터 정도 정처 없이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은둔자라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정크랫? 얘기는 들어봤지. 숨겨진 보물을 알고 있다며? 맨날 자랑하던데.”

경기장 위로 높이 튀어나온 최고의 관람석에 방어구와 흉터, 근육으로 온몸이 뒤덮인 정커퀸이 아주 커다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키가 2미터나 되는 장신의 여왕이 어깨에 대고 있던 ‘도륙’이라는 도끼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약속하는 듯했다.

정크렛이 손가락을 꺾었다. “지금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 맞아. 판결을 기다린다? 정크렛과 로드호그 같은 전문 범죄자에게는 있을 수 없지! 진작 하수도로 들어갔으면 지금쯤 절반은 건넌을 텐데! 그럼 해보자고!”

로드호그는 벌떡 일어나지도, 벽에 고정된 사슬을 뜯어내지도 않았다. 정크렛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대체 왜 그래? 뭘 기다리는데?”

감방문이 벌컥 열렸다.

“좋아, 형씨들!” 경비병이 말했다. “처형될 시간이 왔다!”

수다쟁이 정크렛은 아주 오랜만에 할 말을 잃었다.

로드호그는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고철장은 녹슨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형 공간이었고, 바닥은 얼룩과 잔해로 뒤덮여 있었다. 그 중앙에는 로봇 부품과 작동사니 조각이 주렁주렁 달린 금속 천장이 서 있었다.

벽 위로 늘어선 좌석에는 정크렛이 평생을 알아 온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감동한 그는 쾌활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누군가 계란을 던졌다.

“네가 던진 거 다 봤어, 스킴보 위글리!” 정크렛이 소리쳤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 지혜롭고 인정 많은 여왕께선 여기 쓰레기촌에서는 죄수를 존중하라 하셨거늘.”

로드호그가 정크렛의 어깨를 툭툭 쳤다.

경기장 위로 높이 튀어나온 최고의 관람석에 방어구와 흉터, 근육으로 온몸이 뒤덮인 정커퀸이 아주 커

다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키가 2미터나 되는 장신의 여왕이 어깨에 대고 있던 ‘도륙’이라는 도끼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약속하는 듯했다.

정커퀸은 웃고 있었지만 상냥한 웃음은 아니었다.

“너희 둘은 존중할 필요 없어.” 퀸이 말했다. “너희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처형 보러 온 거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데요!” 정크랫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로드호그와 저는 충직한 백성입니다요. 저희에게 혐의가 있으면 들어봐야겠습니다!”

정커퀸이 또 시작이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좋아.” 퀸은 손가락을 하나 들어올리며 말했다. “쓰레기촌 대문 폭파 시도.”

“방어 체계를 시험해 본 건데요?” 정크랫이 반박했다.

“아웃백 빌의 프리미엄 소시지 가판대 폭파 행위.” 한두 개가 아니었다. “그 가게 단골 몇 명도 함께 날아갔고.”

“그건...” 정크랫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로드호그를 흘끗 바라봤고,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거 우리가 한 거야. 미안해, 친구!”

아웃백 빌은 화가 났다기보다는 상처 받은 표정으로 자리에 축 늘어져 앉았다.

“그리고 최악의 혐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에게 몸을 기울인 정커퀸은 주먹을 꽉 쥐었다. “비스킷 사건이다.”

화가 나 투덜거리는 소리가 해일처럼 부풀어 올랐고, 정크랫은 빙빙 돌며 관중석을 바라봤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라면 안 그랬을 거 같냐!”

“판결한다.” 정커퀸이 높다란 관람석에서 선언했다. “사형. 챔피언이 집행한다.”

“우리한테 직접 도전하는 건 두려우신가?” 정크랫이 외쳤다.

“아니. 비스킷 사건이 꽤 재미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다. 받아.” 퀸이 상자를 건어차 관람석 너머로 떨어뜨렸고, 상자가 부서지며 내용물이 쏟아졌다.

“어이쿠.” 정크랫은 잔해를 뒤적거리며 중얼거렸다. 정크랫은 상당히 멋진 탄띠에 붙은 수류탄 여섯 개를 집었고, 로드호그는 우람한 팔뚝에 사슬 갈고리를 묶었다.

투기장 반대쪽 끝에 있던 거대한 철문이 위로 올라갔다. 그 뒤로 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멋지지 않아?” “챔피언의 손에 죽는다니! 이런 영광이 있나!”

“넌 죽어.” 로드호그가 말했다. “나는 산다.”

“땀장이와 철거자, 폭파범과 고철 수집가 제군...”² 정커퀸이 도끼를 들어 올렸다. “우리 모두의 챔피언, 레킹볼이다!”

갈고리가 문틀 상단에 콕 박힌 후 거대한 공 모양의 메카가 날뛴 듯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정크랫의 탄띠를 붙잡은 로드호그는 비키라는 듯 옆으로 밀쳤다.

2 여왕이 쓰레기촌을 지배하긴 했지만, 도시를 움직이는 건 여왕이 언급한 세력들이었다. 고철 수집가가 부품을 갖다 주면, 폭파범과 땀장이들은 재미있는 기계 장치를 제작했다. 철거자들은 대개 도움이 되는 철거 작업을 수행했다.

레킹볼에서 튀어나온 4연장 기관총 두 정이 불을 뿜었고, 조금 전까지 정크랫이 서 있던 곳의 모래를 갈가리 찢었다. 관중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휘파람을 불었다. 머리부터 땅에 떨어진 정크랫은 이 상황이 별로 마음이 들지 않았다.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절대 메카에서 나오지도 않지!” 가까운 관중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다니까!”

“왜 그럴까? 너무 못생겼나?” 또 다른 관중 하나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생각해 봐. 이 더위에 저 메카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저 안에 냄새 아주 끝내주겠네. 치즈로 만든 하수구 같은 냄새가 날 거야.” 정크랫이 흥분하며 끼어들었다.

“상대를 보고 계속 대응해, 멍청아.” 로드호그가 말했다. 둘 다 메카가 튀어올라 벽에 튕긴 후 무자비한 혜성처럼 날아오는 건 보지 못했다.

정크랫이 손가락을 들어 반박하려 했지만, 로드호그는 이미 챔피언에게 붙들려 반대쪽 벽을 향해 터무니없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다.

바위가 우그러지자 관중석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여왕은 드높은 왕좌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탄띠에서 수류탄을 뽑아 든 정크랫은 안전핀을 뽑은 후 위를 올려다봤다. 항상 긴장을 해야 일이 잘됐기에.

레킹볼의 갈고리가 머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정크랫은 가볍게 피한 후, 바람을 가르며 회수되는 갈고리 줄을 붙잡았다. 당겨지는 힘 덕분에 먼지투성이 새처럼 날아오른 그는 메카로 접근하면서 수류탄을 떨어뜨렸다.

“로드호그!” 정크랫은 땅을 향해 곤두박질치며 외쳤다. “나 좀 받아 줘!”

로드호그는 그를 받아줄 수 없었다. 투기장 반대쪽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던 것이다.

착지한 정크랫이 지면에 퐁퐁 튀며 굴러가는 사이, 수류탄이 폭발했다. 정크랫은 빠진 이가 없는지 확인하며 비틀비틀 일어나, 레킹볼이 있던 곳에 생긴 연기 나는 구덩이를 바라봤다.

레킹볼은 아직 거기 있었다. 메카의 장갑판이 살짝 그을리고 위의 조그만 해치가 헐거워진 게 다였다.

“제기랄탕!” 정크랫은 잔뜩 화가 나서 욕을 내뱉었다.

아직 죽지 않은 로드호그가 크게 씩씩대며 달려와 사슬 갈고리를 휘두르다가 던졌고, 그 갈고리는 레킹볼의 해치에 깊이 박혔다. 피부 아래의 근육이 부풀어오른 로드호그가 사슬을 당겼고...

메카의 장갑판 패널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다.

비상등이 깜빡이는 메카의 조종석에는 햄스터 한 마리가 눈을 깜빡이며 앉아 있었다. 메카 조종 따위는 절대 하지 않을 평범한 햄스터보다 몸집이 약간 큰 조종사는 모호크 머리를 하고 있었다.

관중석은 침묵에 빠졌다. 한참이 지나고, 누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게 챔피언이야?” 아웃백 빌이었다.

햄스터는 주먹을 내지르며 화가 나는 듯 짹짹거렸고, 메카 앞쪽에서 빛이 번쩍였다.

“햄스터가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라고 함.” 메카가 통역해주었다.

관중들은 벌떡 일어나 요란하게 환호했다.

햄스터는 메카의 뱃속으로 들어갔고, 4연장 기관총이 튀어나왔다. 정크랫과 로드호그는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 좌우로 몸을 날렸다.

“괜찮아, 로드호그!” 정크랫은 험뎁이며 탄띠에서 수류탄을 하나 더 떼어냈다. “그냥... 거리만 벌리면 돼...”

하지만 관중들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돌아서 날려! 돌아서 날려!”

메카는 모래밭 위에서 멈췄고, 햄스터가 메카 위로 나와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레킹볼에서 갈고리가 발사되어 투기장 중앙의 침탑에 안착했다.

메카는 중앙에서 천천히 회전하다가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회전 반경이 조금씩 넓어졌다. 일렁이는 금속이요, 끊임없이 커지는 죽음의 구체였다.

정크랫과 로드호그는 뒤로 물러났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정크랫이 위에 있던 여왕을 향해 외쳤다.

정커퀸은 발코니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넌 곤죽이 될 테고.”

다음 수를 생각하던 정크랫은 수류탄 안전핀을 이빨로 빼면서, 침탑 주위를 뱅뱅 도는 햄스터를 노려봤다. 그리고 수류탄을 던졌다.

수류탄은 정확한 위치에서 폭발했다. 줄이 끊어진 레킹볼은 똑바로 날아가 투기장 벽을 꿰뚫었는데, 소리를 들어 보니 세 블록 정도는 더 날아가는 것 같았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고, 정커퀸은 바깥의 도시를 바라봤다.

“무사해.” 퀸이 말했다. “빌의 새 판잣집에 부딪혀 멈춘 것 같군.”

빌을 포함한 관중 전체의 환호성이 울리는 가운데 여왕이 발코니에서 뛰어내렸다.

“잘됐네. 어차피 너희 둘은 내가 직접 저승으로 보내주고 싶었거든.”

“그...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정크랫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숨겨진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절대 알아낼 수 없다는 건 아시죠!”

여왕과 관중이 한목소리로 탄식했다.

“네 보물은 아무도 관심 없어.” 정커퀸이 다가가며 말했다.

“내가 악명 높은 보물을 숨겨줬다니까요!” 진정한 영웅은 언제나 비웃음을 참아내야 하는 법. “**마지막 문**을 통과하는 법을 아는 건 나뿐이라급쇼!”

멀리서 거대한 구형 금속 메카가 모래 위를 구르며 투기장을 향해 맹렬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관중이 조용해졌다.

“마지막 문이 뭐야?” 누군가 물었다.

“옴니움의 열리지 않은 마지막 문 말이야,³ 멍청아.”

“아, 그 문.”

3 쓰레기존은 옴닉 사태 이전에 인간을 위한 로봇 하인과 탈주한 창조주 프로그램 아누비스를 위해 기계 병사들을 생산하던 공장인 옴니움의 폐허 안에 건설되었다. 쓰레기 집단은 이미 오래전 이 공장을 폭파한 후 전부 고철로 써버린 상태였다.

“마지막 문을 통과하고 싶으면,
내 눈이 필요할 거야.”

관중들이 그 말을 곱씹었다.

“놈을 처치하고 눈을 가져와!”

“마지막 문은 통과할 수 없어. 때려도 보고 폭파도 해봤지만 흠집조차 나지 않았다고.” 여왕은 정크렛을 쏘아봤다. “네가 들어갔을 리가.”

“들어간 것뿐 아니라 나오기까지 했는덱쇼!” 정크렛이 말했다. 모래를 짓밟는 소리가 더 커졌다.

“그래?” 여왕이 말했다. “어떻게?”

“지붕에서 점점 더 커지는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떨어졌는데요! 그러다 제어실을 찾아서, 거길 내 아주 특별한 열쇠에 연결해 뒀습쇼!” 정크렛은 여왕을 향해 짓궂은 윙크를 보냈다. “마지막 문을 통과하고 싶으면, 내 눈이 필요할 거야.”

관중들이 그 말을 곱씹었다.

“놈을 처치하고 눈을 가져와!”

레킹볼이 벽에 난 구멍으로 다시 나타나자 쓰레기촌의 덩치들이 관중석 난간 너머로 쏟아져 내려왔다. 메카와 성난 관중들은 폭발 직전의 풍선처럼 동요했다. 투기장 반대쪽에서는 폭발로 온몸이 그을린 폭파범들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땀장이들은 거대한 기계를 작동시켰다.

로드호그는 투기장 안에서 양방향으로 진격해 오는 인파를 번갈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정크렛,” 그가 말했다.

“정크렛, 너 천재구나?” 정크렛은 친구의 나머지 말을 제멋대로 완성했다.

“칼.” 로드호그가 말했다.

“오, 다행이군. 바보라고 하려는 줄 알았어.”

로드호그가 “칼.”이라고 말한 이유는 철거자 하나가 칼을 던졌기 때문이었다.

정커퀸은 도끼를 들어 날아오는 칼을 공중에서 쳐냈다.

“마코,” 퀸이 말했다. “저 자식, 거짓말이지?”

“몰라.” 로드호그가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전진하던 철거자 무리를 향해 돌아섰다. “너희는 원데 내 도시의 보물을 차지하려 드나?” 누가 대답도 하기 전에 폭발범들의 폭탄 백 개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자욱한 모래 구름이 일었고, 정커퀸만 홀로 정크렛에게 다가갔다. 주위에서는 철거자들이 정크렛을 붙잡으려고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너 죽는 꼴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정커퀸이 말했다.

“나도.” 로드호그가 말했다. 정커퀸은 공감한다는 듯 로드호그의 어깨를 토닥인 후 돌아섰고, 레킹볼이 마침내 굴러들었다.

“어디 갔었어?” 퀸이 말했다.

햄스터는 조종석 밖으로 기어 나와 으르렁대며 중얼댔다.

“포유류는 하수도에 떨어졌다고 함.” 메카가 통역했다.

“그래서 그런 약취가 나는 거겠지?” 정커퀸이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목욕을 한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크렛은 잔뜩 당황해서 허공에 손을 내저었다.

“어떻게 알았어?!”

퀸은 돌아섰고, 순간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다.

“쥐새끼야, 누가 너더러 입 열래?”

“저 녀석, 로봇 수트를 입은 뽀빠이잖아!” 정크렛이 말했다.

“넌 쥐새끼고, 네 친구는 돼지 얼굴이지.” 정커퀸이 말했다. “됐다, 지긋지긋해. 보물이나 내놔.”

여왕은 레킹볼의 철판을 찡찡 때리고는 철거자 무리를 가리켰다.

“챔피언! 레드카펫 깔아!”

레킹볼은 군중을 향해 갈고리를 발사하며 전방으로 돌진했다. 로드호그도 그 뒤를 따라 달려나가면서 갈고리를 좌우로 흔들며 길을 열었다. 정크렛은 친구의 뒤를 따랐지만 여왕의 칼은 그의 등을 겨누고 있었다.

넷은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엇치락뒤치락 이동했다. 거리에는 사냥에 나선 철거자 갱단이 취한 늑대 무리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옆 골목에서 뛰어나온 철거자가 소총을 겨누자, 멈추지 않고 달리던 구체에서 그대로 다리 네 개가 튀어나와 앞으로 나아갔다. 메카는 공중으로 튀어 올라 회전한 후 좌회전하는 소리와 함께 그 철거자 위에 떨어졌다.

정크렛이 얼굴을 찡그렸다. 철거자의 상태를 본 그는 다시 한번 얼굴을 찡그린 후 맨 앞에서 달리던 로드호그에게 다가갔다.

“로드호그.” 그가 속삭였다.

“안 돼.” 로드호그가 말했다.

“뭐가 안 돼?”

“계획 더 세우지 마.”

정크렛은 거의 폭발할 뻔했지만 분노는 나중에 표출하자며 현명하게 견뎠다.

“여왕 폐하께서 보물을 손에 넣으면 우린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알지?”

로드호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날 따르는 건 문제가 생겨서 폭도가 문 앞에 나타나고 지금껏 이룩해 온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였을 때, 이렇게 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일단 그 문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신호할 때까지 기다려. 알았지?”

“거기 둘, 뭘 그렇게 속닥거리는 거야?” 정커권이 물었다.

“보물 얘긴데쇼.” 정크렛이 사실 그대로를 말했다.

“내 보물이겠지.” 정커권이 가르쳐줬다. “그런데, 보물은 대체 뭐야?”

“아주 놀라실 걸요?” 정크렛이 말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꿈에도 모르실 거라는 사실!”

그는 킥킥 웃었고, 나머지 일행은 계속 달리며 쓰레기 집단을 쓰러뜨리며 나아가다가 언덕 꼭대기의 안뜰로 쏟아져 들어갔다. 아래쪽으로 바위 토대 위에 기울어져 있는 건물에는 오랜 세월 동안에도 녹이 슬지 않은 매끈한 강철 문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 문이었다.

아쉽게도 이미 철거자 무리가 문 앞에 모여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 봉대를 감은 채 맨 앞에 서 있던 철거자 우두머리는 넓은 테이프로 대충 감은 커다란 수제 대포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대포가 뭘 발사하는지, 애초에 뭐라도 발사할 수는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어쨌든 본인은 무척이나 만족한 듯했다.

정커권은 불쾌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정크렛의 뺨을 후려갈겼다.

“넌 애초부터 내 규칙을 별로 존중하지 않았지.” 여왕이 말했다. “그런데 이제는 네놈이 내 등 뒤에 있네? 내가 왜 쓰레기촌을 지배하는지 알고 있나? 왜 사람들이 날 따르는지?”

볼을 쓰다듬던 정크렛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다.

“말 끊지 마.” 정커권이 말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다들 내게 충성하기 때문은 아니야. 저길 좀 보라고.”

정크렛은 이미 보고 있었다. 철거자들은 이제 대포를 조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지.” 정커권은 말을 이었다. “사실 뛰어나긴 하지만.”

부웅. 대포에서 하얗게 타오르는 에너지 광선이 방출되었다. 정커권의 머리 위쪽에 있던 건물 일부가 그대로 증발해 버렸다.

“집중해서 들어.” 반짝이는 잿불들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여왕이 말했다.

정크렛의 눈은 언덕 아래에 있는 철거자 우두머리를 향해 있었다. 목표를 맞이지 못한 우두머리는 투덜거리면서 대포의 각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집중해서 들으라고.” 여왕이 정크렛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다. “사람들이 날 따르는 건 문제가 생겨서 폭도가 문 앞에 나타나고 지금껏 이룩해 온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였을 때, 이렇게 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정크렛을 내동댕이친 정커퀸은 도끼와 칼을 꺼냈다.

“누구 얼굴에 도끼 박아 줄까?” 여왕이 포효했다.

그리고는 홀로 언덕을 내려가 철거자 무리에게 달려들었다.

부웅. 대포가 발사되었지만 정커퀸은 웃으며 공중에 떠올랐고, 광선은 여왕을 스치지도 못했다. 도끼가 연기와 잿불 사이로 호를 그리자 대포는 폭발했다. 철거자 우두머리는 외마디 비명을 내질렀다. 정크렛은 나머지 철거자 무리가 자신을 향해 달려들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허리춤에 있던 수류탄은 네 개, 철거자 무리는... 네 명 이상. 낄낄거리며 수류탄을 도로 집어넣은 정크렛은 육탄전을 벌이기 위해 내리막을 뛰어 내려갔다.

오른쪽에서는 레킹볼이 전속력으로 군중 사이를 누비며 철거자들을 한 줄씩 공중으로 날려 보냈고, 왼쪽에서는 성난 로드호그에게 누군가가 혀를 빼어 물며 도발해대고 있었다.

육탄전이 펼쳐진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든 정크렛은 정커퀸을 보았다.

여왕은 마지막 문을 등진 채 서있었고, 칼, 몽둥이, 갈고리, 총으로 무장한 철거자 무리 열 명이 정커퀸을 둘러싸고 있었다. 나머지 네 명은 상한 물골로 정커퀸 근처 진흙탕에 처박혀 있었다.

“빨리도 왔네.” 그녀는 말했다. “이리 와.”

“정커퀸 분부대로!” 정크렛이 진정성을 담아 환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개를 끄덕인 정커퀸은 삐쩍 마른 정크렛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충성심은 개나 쥐. 난 개인적으로 별로야.”

여왕이 정크렛에게서 손을 떼자 남은 수류탄의 안전핀 세 개가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다.

“눈은 날려버리지 마라, 알겠지? 문 열 때 필요하다며.”

폭탄이 되어 버린 탄띠와 함께 군중 속으로 날아가던 정크렛은 가슴에 존경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종국에는 정커퀸을 배신해야 한다는 사실이 유감이었지만.

정크렛은 전장을 훑어보며 이동 경로를 탐색하다가 줄에 매달린 채 다가오던 누군가를 포착했다. 레킹볼 위로 뛰어오른 정크렛은 갈고리 줄에 매달렸고, 흔들림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메카를 벗어나 공중으로 솟구치며 철거자 무리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기 시작했다.

광. 정크렛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삶은 아름다워.

광. 철거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새처럼 팔을 넓게 펼친 폭탄광은 등 뒤로 피어오르는 폭발의 열기를 느꼈다.

광. 중력은 정신 차리라는 듯 정크렛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이런.

눈을 뜬 정크렛을 향해 지면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로드호그! 나 좀 받아...”

“일으켜 세워.” 여왕이 말했다.

로드호그는 축 늘어진 정크렛을 들어 올렸고, 한참이 지나서야 폭탄광은 땅을 디디고 설 수 있었다.

“이긴 건가?” 정크렛이 힘없이 눈을 뜨고 말했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천재 양반?” 마지막 문의 광학 스캐너 옆에 기댄 채 정커권이 말했다. 여왕 주위에는 여기저기 다친 철거자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메카에서 나온 챔피언은 철거자들의 대포 조각을 살펴보며 놀리듯 혼잣말로 짹짹대고 있었다.

“이겼어!” 정크렛이 선언했다.

“맞아.” 정커권이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 네가 해결할 일이 남았지.”

“물론입죠, 여왕 나리!” 그는 교활하게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로드호그! 지금이야!”

로드호그는 멀뚱히 정크렛을 바라봤다.

“이게 신호라고!” 절박한 표정의 정크렛이 외쳤다.

로드호그는 팔꿈치를 굽적였다.

흉터가 가득한 근육질 손이 정크렛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계획 얘기하는 걸 잊었나 보네?” 정커권의 상냥한 척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 메카에 탑승한 햄스터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크렛은 여왕의 말이 맞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런 것 같은데쇼?” 정크렛이 슬프게 말했다.

“뭐, 어쩔 수 없지.” 정커권이 말했다.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여왕은 정크렛을 들어 올려 광학 스캐너에 얼굴을 처박았다.

“접근 승인됨.” 문에서 소리가 들렸다.

“흐응흐트브트흐.” 정크렛이 신음했다.

마지막 문이 미끄러져 열리자 따뜻한 진동과 함께 서늘함이 가득한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다. 안에 들어선 정커권은 어둠 속을 보기 위해 눈을 찌푸렸다. 위를 쳐다보던 여왕은 공간의 높이가 상당함을 확인했다.

“놀라움 감지.” 레킹볼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로드호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그의 가면조차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의 면면을 살펴본 정크렛은 뿌듯함을 느꼈지만, 아쉽게도 오래 느끼지는 못했다.

“너희 둘,” 정커권이 정크렛과 로드호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30초 줄 테니 꺼져. 그 난리를 쳤는데도 살려주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크렛이 반론을 제기하기도 전에 여왕은 돌아서서 손바닥으로 레킹볼을 두드렸다. “이거 날 수 있나?”